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0호 [루계 제26174호] 주체107(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새로운 로력적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자

올해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으로 전야가 끓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뜻깊은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서해지구와 동해지구 농촌들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서해지구 농촌들에서

뜻깊은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한마음안고 떨쳐나선 서해지구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낟알털기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면한 낟알털기전투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였다.

황해남도의 협동벌들에서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일군들은 매일 많은 량의 벼를 털어내기 위해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배천군, 해주시, 재령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낟알털기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이들은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벼단실어들이기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벼종합탈곡기와 이동식탈곡기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모든 농장들에서 벼가을을 와닥닥 끝낸 기세로 벼단실어들이기를 앞세우면서 낟알털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지난 25일까지 벼단실어들이기는 96%이상, 낟알털기는 56%이상 해제끼는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평안남도에서 벼단실어들이기와 낟알털기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증산군, 숙천군의 일군들은 낟알털기가 벌어지는 현장에 나가 농장, 작업반들에서 교대별로력조직을 짜고들어 더 많은 낟알을 털어내게 하고있다.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일 한마음으로 매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털어내여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선천군, 운전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낟알털기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운전수들은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벼단운반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은 한알의 낟알이라도 허실세라 벼단실어들이기와 낟알털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황해북도에서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리원시, 연탄군의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달리고있다. 농장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대중의 열의를 고조시키고있다.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은 교대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벼단을 실어들이는 족족 털어내게 하고있다.

평양시와 남포시의 농촌들에서도 모든 힘을 낟알털기에 집중하여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동해지구 농촌들에서

뜻깊은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동해지구 농촌들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함경북도의 농촌들에서 낟알털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증산성과로 당을 받들려는 드높은 각오를 안고 벼가을을 끝낸 기세로 낟알털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일정계획을 평균 12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면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함주군, 영광군에서 낟알털기실적을 올리고있다.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낟알털기와 수매를 끝낸 단위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시대정신의 창조자들이라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낟알털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낟알털기전투에서 강원도사람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투쟁본때를 다시한번 과시할 열의밑에 전진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도에서는 화상회의를 통하여 낟알털기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이게 하고있다.

원산시에서 올해 많은 이동식탈곡기를 생산한 성과에 기초하여 그 리용률을 높여나가고있다. 이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시간이 다르게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충천한 기세로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낟알털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도의 일군들은 물론 작업반초급일군모두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오늘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명간군, 김책시, 길주군의 일군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실속있게 전개하여 대중의 정신력이 낟알털기전투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열, 투쟁열로 하여 동해지구 농촌들에서 낟알털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김성진

질좋은 지은옷생산에서 혁신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말까지 관리국아래 수십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조선옷, 여름옷, 모직외투를 비롯한 주요지표별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국일군들은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는 한편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아래단위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자재준비로부터 설비리용에 이르기까지 걸린 고리가 없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국아래 모든 단위들에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과 질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피복기술준비소 일군들과 기능공들은 4차원옷설계프로그람들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옷도안창작과 설계, 피복기술준비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평양피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잠재력의 예비를 설비현대화에서 찾고 설비개조, 기술개조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는 한편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보통강피복공장, 사동옷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안고 옷설계를 동심에 맞게 특색있게 하면서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여러가지 질좋은 어린이옷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평양수예품공장에서도 기능공대렬을 강화하고 국내자재에 의거한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옷가공기술을 받아들여 우아하고 세련된 조선옷들을 더 많이 만들어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형제산, 모란, 서성, 사동피복공장들과 만경대, 동대원, 평양창광옷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새 제품개발사업과 질제고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다양하고 질좋은 샤쯔, 달린옷을 비롯한 계절옷지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형태, 색갈이 다양하면서도 질좋은 모직외투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동평양, 강동, 장진, 대성피복공장들과 락랑, 문수, 삼석옷공장들에서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고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중요지표별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관리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솜옷생산전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전혜영

전력생산성과 확대

삼수발전소에서

삼수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전력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혁신과 비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전력생산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누구나 한가지이상의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터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다.

그들은 발전설비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일간점검과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종전보다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또한 발전기들의 운영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설비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있다.

전력생산자들은 보통 15일은 걸려야 하던 발전기대보수를 5일동안에 해제껴 전력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진 기세로 계속 투쟁을 벌리고있다.

지금 발전소에서는 계획보다 많은 량의 전력을 더 생산하는 혁신이 창조되고있으며 그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전혁주

모든 발전기들에 만부하를 걸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순천화력발전소 로동계급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현대적인 도양묘장건설 힘있게 추진

전국각지에서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창조해나갈 각오를 안고 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적인 도양묘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만년대계의 건축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돌아보시면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양묘장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도양묘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도양묘장을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현대적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다. 공사가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조건에 맞게 도의 책임일군들은 현장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족족 필요한 대책들을 제때에 세워나가고있다. 또한 로력과 설비, 자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공사장에 달려나온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여 짧은 기간에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 벽체쌓기 및 충막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낀 기세로 내외부미장을 비롯한 공사과제수행에서도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도양묘장을 훌륭하게 일떠세울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야외재배장과 경기질생산장, 나무보전시장, 관리청사 등 여러 대상들에 대한 공사는 높이 세운 일정계획대로 진행되고있다.

평안북도에서 도양묘장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양묘장을 산림복구전투승리를 담보하는 믿음직한 나무모생산기지로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분발해나선 도의 책임일군들은 공사작전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공사조건이 수시로 변하는데 맞게 건설력량과 수단들을 기동성있게 배치하여 단위당 시간에 작업실적을 부쩍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공사에 참가한 모든 근로자들이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시공단위들에서는 작업대상에 따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매일 맡겨진 공사과제를 넘쳐 수행해나가고있다. 결과 수십동의 대상들에 대한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 벽체쌓기가 끝나고 내부와 외부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양묘장건설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도의 일군들은 공사량이 방대한 조건에서 일별, 월별공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패기있게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또한 침투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맡겨진 공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다른 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현대적인 도양묘장을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해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충일

10여가지의 새 제품 개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이후 짧은 기간에 공장에서는 물포도단설기, 흰쌀과줄, 찔광이단물을 비롯한 10여가지의 새 제품들을 개발하여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영전략을 바로세워 생산을 활성화하며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지난 7월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의 백옥같은 충정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치하하시면서 제품의 질제고와 새 제품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이 인민들이 항상 즐겨찾는 제품,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일념안고 모든 종업원들이 새 제품개발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공장일군들은 인민들의 수요를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그에 기초하여 새로 개발할 제품의 종류와 가지수를 명확히 정하고 그 개발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이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능성식료품과 자기 지방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식료품을 만드는것을 새 제품개발의 기본목표로 내세웠다.

뚜렷한 목표밑에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빠른 시일안에 성과가 달성되도록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공장의 기술력량이 질좋은 새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새 제품개발을 맡아 수행하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실력을 부단히 높이고 국내와 세계의 식료품개발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있다.

이들은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들과 겨룰수 있는 식료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기술연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이후 새 제품개발열의는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부쩍 올라갔다.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새로운 기술혁신안, 기발한 착상들이 생산자대중속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삶과 투쟁의 고귀한 지침으로 간직한 전체 종업원들은 과학기술학습을 꾸준히 하고 보다 특색있는 새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일군들의 지도와 방조밑에 빵2작업반, 빵1작업반, 콩우유작업반, 강정작업반의 로동자들이 맛좋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당과류와 음료개발에서 앞서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호두초콜레트사탕, 명태쌀바싸와 같은 새로운 식료품들의 개발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새 제품개발이 적극화되는데 맞게 자재보장조건을 따라세우고 인민들의 수요와 평가정형을 제때에 알아보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호성

다음해생산준비에 큰 힘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인 기세드높이 다음해생산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다시마모분산작업 시작

수산부문에서

동서해의 수산사업소, 재배어업사업소, 바다가양식사업소들의 일군들과 양식공들이 올해 바다나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다음해생산준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충실히 자래운 다시마종자를 바다환경에 적응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데 이어 얼마전부터 기본면적의 양식장에서 다시마모분산작업을 시작하였다.

동해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더 높은 수산물생산성과로 당정책관철에 이바지할 결의안고 바다가양식에 힘을 넣고있다.

함경남도수산관리국아래 경포, 신포재배어업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다시마모분산작업실적을 높이면서 모가 빨리 자랄수 있도록 여러가지 생육조건을 잘 보장해주고있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아래 여러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양식장면적을 더욱 늘이고 다시마모분산작업에 힘을 넣고있다.

함경북도수산관리국아래 수산사업소들에서도 다시마모들의 생육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모분산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면서 양식장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지난해보다 1.3배로 높아진 올해 다시마생산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서해의 부포, 구미포, 옹진바다가양식사업소의 일군들과 양식공들도 다음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다. 전마선과 발동선들의 수리정비를 앞세우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많은 량의 바줄과 뻬를 마련한 이들은 며칠후부터 다시마모분산작업에 진입할수 있는 준비를 끝내였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바다나물생산에서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내달리는 수산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에 의해 드넓은 양식장마다에서는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과일나무겨울나이준비 활발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각지 과수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과일대풍을 안아온 크나큰 자랑을 안고 다음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다음해농사차비전투를 시작한지 불과 며칠 안되는 기간에 많은 과일나무들에 대한 밑비료주기를 진행하였다.

과일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과일농사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다음해농사차비의 중심을 당면한 과일나무들의 얼굼피해를 막기 위한데 두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특히 신대, 송곡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일나무밑비료주기를 잘해야 다음해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잘 맺을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북청군안의 과수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해마다 과일대풍을 마련하는것은 과수부문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과일나무밑비료주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과일나무의 영양상태가 좋아야 겨울추위를 이겨내고 잘 자기를 잘할수 있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구덩이파기와 유기질비료주기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고있다.

은천과수농장을 비롯한 많은 과수농장들에서도 거름과 흙보산비료생산에 리용할 원료확보에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다른 과수농장들에서도 겨울나이준비사업을 다그치면서 그루바꿈, 보식 등에 힘을 넣고있다.

다음해에도 과일대풍을 안아올 불같은 열의에 넘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양수기생산준비를 빈틈없이

평성관개기계공장에서

평성관개기계공장에서 올해 양수기생산과제를 상반년기간에 앞당겨 완수한 기세드높이 다음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주물품생산과 여러 부분품가공전투에서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공장에서는 10월말현재까지 3종의 주물품 80여개, 수천개의 각종 부분품들을 생산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놀라운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원료, 자재보장이자 생산실적이라는 관점에서 파철과 연료, 각종 공구들을 앞질러 보장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주물직장에서 련속공격전의 기상이 차넘치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전진하는것이 현시기 당정책적요구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직장의 로동자들은 주물품의 질과 량을 철저히 보장하여 선행공정에서부터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가공직장에서는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한편 새로운 장비제작을 비롯한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가공품의 질과 가공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지금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높이 다음해생산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강금성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심화되는 속에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창조와 위훈이 나래치고 혁신의 동음이 높은 곳을 찾아가면 일이 잘되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의 하나가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자각과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자기 지역 인민들과 자기 단위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성심성의로 풀어줌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고조시켜나가는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그 미더운 모습을 대할수록 가슴뜨겁게 새겨지는것이 있다.

그것은 일군들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써오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로고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합니다.》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자면 올바른 인민관을 지녀야 한다. 올바른 인민관을 지닌 일군이라야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수 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천만고생도 락으로 여기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면서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훌륭히 받들어나갈수 있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때마다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바로가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조직하시였던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때였다.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과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내외정세가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는 력사적환경에 맞게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참된 인민관을 지닐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지만 일군들은 인민을 선생으로 여기고 인민대중에게서 배워야 한다. 세상에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인민대중에게서 배우고 인민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가면 그 어떤 고난도 뚫고나갈수 있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믿지 않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것이 바로 혁명하는 사람들의 좌우명으로 되여야 한다. …

잊지 못할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은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할뿐아니라 인민대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이며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행복이고 영광이라고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오로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은 정녕 우리 일군들모두가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언제나 우리 일군들이 이민위천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모든 활동의 기본출발점으로, 최고원칙으로 삼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일군들에게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이다. 인민대중을 떠난 당이나 수령은 있을수 없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느해의 양력설에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옳은 견해를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일군이라야 참다운 주체형의 당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일군들의 구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인민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숭고한 인민관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주체92(2003)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또다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주체사상은 곧 이민위천의 사상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바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특출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수령으로 영생하고계시는데 대하여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이민위천은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자신의 좌우명이고 정치철학이라고,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며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찾으며 인민의 생활을 보살펴주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당과 수령의 풍모를 따라야 한다고, 일군들은 이민위천의 사상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대중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라는 관점에서 인민대중을 열렬히 사랑하고 존대해야 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당과 뜻을 같이하고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참된 일군으로, 인민의 성실한 심부름군으로 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다운 심부름군, 충복이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주체101(2012)년 5월 8일을 잊을수 없다.

그날 만경대유희장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고있으며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심부름군이란 어떤 일군들인가를 가르쳐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현지지도였다.

다음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들이라고,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인민관을 바로가지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오늘도 들려온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인민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이고 한생의 좌우명이였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이.

일군이라면 누구나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일군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면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로동당만세를 부르게 될것이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혁명을 알고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갖추면서 성장한 우리 일군들, 헌신적복무자들의 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될 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령도적권위는 더욱 빛나고 바로 그 품속에서 우리 인민의 행복은 더 활짝 꽃펴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혁

약수터가 전하는 사연

오늘 우리 인민은 어머니당의 은정넘친 사랑속에 복받은 삶을 누려가고있다.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대할 때면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설봉산기슭에 자리잡은 석왕사 약수터를 찾으시였던 그날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주체36(1947)년 9월말 어느날이였다.

그무렵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 이어 강원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한 일군을 부르시여 오늘 석왕사에 가보자고 하시였다.

일군은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이 바로 추석날이였던것만큼 조국에 개선하신 첫날부터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하루만이라도 경치좋은 곳에서 휴식하시게 되였다는 생각에서였다.

당시 그곳에는 그리 크지 않은 휴양소가 자리잡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휴양소앞도로에 도착하자 휴양소의 일군들과 휴양생들이 달려나와 수령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휴양소의 일군으로부터 운영실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휴양소주위를 잠시 돌러보시고나서 여기 경치가 참 좋다고, 공기가 맑고 약수도 있는데 여기를 현대적인 휴양지로 잘 꾸려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민족의 유산인 석왕사를 잘 보존관리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일군에게 여기 좋은 약수터가 있다는데 어딘가고 물으시고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약수터에 이르시여 몸소 약수맛을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석왕사약수가 좋다고 하는데 약수를 마셔보니 확실히 좋은것 같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휴양소일군에게 이 약수가 어떤 병에 좋은것 같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다.

약수가 어떤 병에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약수가 좋다고 해서 그저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사람들의 속병도 여러가지인데 정확히 알고 마셔야 한다고 하시며 약수를 분석해보고 어떤 병에 좋은지 연구해보아야 하겠다고, 약수가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마셔야지 옛날 사람들처럼 석왕사에 구경왔던 길에 한번 먹어보자는 식으로 마셔서는 안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흐르는 한줄기의 약수를 놓고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휴양소일군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휴양소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망적으로는 석왕사휴양소를 정양소나 료양소로 전환시키고 근로자들이 이곳에 와서 약수를 마시면서 병을 고칠수 있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석왕사일대에서는 약수탐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 과정에 여러개의 약수터를 더 찾아냈으며 경치좋은 이곳에는 료양소가 꾸려져 석왕사일대는 명승지로만이 아니라 이름난 료양지로 훌륭히 전변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애국주의교양에 큰 힘을 넣어

토산군 백화리당위원회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 큰 힘을 넣어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뜨거운 애국심을 간직하고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실자료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대중속에서 높이 발휘되는 애국적소행을 찾아 널리 소개선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농장원들 누구나가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다. 결과 귀중한 낟알을 한알이라도 허실할세라 애써 노력하며 나라의 쌀독을 가득히 채우기 위해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지금 이곳 리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의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광 복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빛나는 자욱

류다른 아침산책

가렬처절한 전쟁이 끝난 이듬해 가을 어느 한 농촌에서 한밤을 보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른새벽 밖으로 나가시였다.

마을앞의 논가로 향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곳 일군에게 논을 한바퀴 돌아보자고 하시였다. 일군은 자그마한 쪽배 한척을 끌어왔다. 쪽배의 앞에 자리를 잡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논을 천천히 돌아보시였다. 농장일군은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잠시나마 아침산책의 기회를 마련해드리게 되였다고 생각하며 노를 저었다. 어느덧 쪽배는 드넓게 펼쳐진 논을 거의다 누볐다. 아침식사시간도 훨씬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에야 어버이수령님의 아침산책은 끝났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곳 조합원들에게 보장조건을 잘 지어주겠으니 늪에 뚝을 막고 한 10만평 논을 풀라고 교시하시였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고작해야 반두질로 붕어 몇마리밖에 건져내지 못하던 그 늪이 흰쌀을 내는 풍요한 논으로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지개벽이 아닌가.

모두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으나 일군만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날의 류다른 아침산책에 농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뜻이 깃들어있었음을 아직은 자기만이 알았기때문이였다.

또다시 정해주신 목표

1980년대말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되는 광복거리를 돌아보실 때였다.

이날 수행일군들의 기쁨은 말할수 없이 컸다. 그이께서 현대적으로 일떠서는 광복거리를 돌아보시면 만족해하시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마치 비행장활주로를 련상케 하는 드넓은 대통로 량옆으로 뭉게뭉게 하늘을 치받으며 줄줄이 일떠선 고층살림집들, 각양각색의 형태미를 자랑하며 지형지물에 맞게 들어앉은 식당…

그 광경을 바라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만면에 밝은 미소가 어리였다. 그이께서는 천지개벽이라고, 인민들이 좋아하겠다고 거듭 외이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 조금이라도 더 기쁨을 드리고싶어 광복거리에 건설된 백화점과 상점들 그리고 학교와 탁아소, 리발소와 목욕탕을 비롯한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일군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복거리 살림집에 사람들을 다 들여도 평양시의 살림집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하나의 도시가 새로 일떠서 모두가 기쁨을 금치 못하는데 우리 장군님께서만은 모자라는 살림집문제로 걱정하고계시였던것이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평양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까지 3만세대를 더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훌륭한 광복거리의 살림집들을 보시며 받아안으신 기쁨속에서 또다시 수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설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정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이런 격정의 웨침을 터치였다.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누나!)

해수욕장을 돌아보시며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전유원지의 해수욕장을 찾으시였다.

유원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해수욕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가까이에 우뚝 솟아있는 건물을 가리키시며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가고 물으시였다.

해안감시대라는 이곳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세웠을것이라고 하시며 해일이 어데까지 들어오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이전에는 별로 큰 해일이 없었는데 지난해 8월에 일어난 태풍때 파도는 크게 들어오지 않고 물보라가 소나무숲속까지 날아들어왔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해수욕장은 날바다이기때문에 해일피해를 받을수 있는것만큼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많은 일군들이 이곳에 찾아와 해수욕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 료해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날바다에서 해일피해를 받을수 있다는 문제는 론의된적이 없었다. 지난 시기에 크게 해일피해를 입은적이 없으니 모두 그에 대해서는 관심밖이였던것이다. 이곳 일군들도 늘 날바다이기때문에 물이 맑다는 자랑은 빼놓지 않고 하면서도 해일피해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즐겨찾는 해수욕장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을세라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뿌듯이 절감하며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과 일군들의 역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5돐이 되여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2(2003)년 10월 28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나가는데서 우리 일군들이 항상 되새겨보며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나라의 주인이며 일군들은 인민대중의 복무자, 심부름군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일군들을 위하여 인민들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을 위하여 일군들이 존재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은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5년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우리 혁명실천에서 뚜렷이 발휘된 나날이다. 지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단위들을 보면 례외없이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는 단위들이다.

우리 염주군은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다른 군들에 비하여 뒤떨어져있었다. 그러던 군이 최근년간 모든 면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해온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가 최대로 중시한것은 일군들이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한것이다.

인민생활문제는 오늘 우리 당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바로 여기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간생활이 천태만상이듯이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무엇보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 살림집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푸는데서 기본은 자기 지역의 특성을 잘 리용하는것이다. 우리 군은 벌방군으로서 농사만 잘 지으면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큰 진전을 내다볼수 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의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오자면 농사를 과학화해야 한다는것을 자각하고 우렁이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머리를 기웃거리는 일군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렁이유기농법은 긴장한 로력과 비료를 절약하고 지력을 개선하면서도 벼의 생육기일을 줄이고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을뿐만아니라 우렁이를 가지고 축산을 활성화하여 고기생산도 높일수 있는 일거다득의 농사방법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인식시키고 모두가 달라붙도록 하였다. 룡북리, 남압리를 비롯하여 군안의 여러 농장들에서 정보당 10t이상의 알곡소출을 내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개선을 가져온것은 바로 자기 실정에 맞게 군이 살아나갈 방도를 찾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간데 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일부 일군들속에서 주민들이 살림집문제로 생활상불편을 느끼고있는것을 보면서도 조건타발을 하며 만성적으로 대하는데 대해 인민성이 없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풀기 위하여 일군들부터 발벗고나서도록 하였다. 세멘트와 모래, 철근과 목재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군안의 일군들은 시공주, 건설자가 되고 자재인수원이 되여 뛰고 또 뛰였으며 군의 예비와 건설력량을 총동원하여 몇해사이에 수백세대에 달하는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오늘 우리 군에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훌륭하게 꾸려지게 된것도 인민에 대한 일군들의 헌신적복무정신이 가져온 귀중한 결실이다. 식료공장과 만병술공장, 남새온실, 버섯공장과 오리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군안의 주민들과 유치원, 탁아소들에 공급되고있다.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회관과 5 000석능력의 야외경기장, 체육관 등에서는 다양한 문화정서생활과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일군들이 자기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문제를 풀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피타게 사색하고 뛰고 또 뛸수록 인민생활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우리는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데서 중시한것은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신하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일본새, 사업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당의 의도와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에 맞게 사업을 전개하며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이 높이 발휘하여야 할 혁명적기풍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관철자가 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교육을 중시하고 보건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신하는데서 중요한 계기의 하나로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교육과 보건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직접 틀어쥐고 일군들이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뿌리뽑고 이 사업에 혁명적으로 달라붙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수시로 아래에 내려가 걸린 문제가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문제가 어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데 기초하여 협의회를 진행하고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였다. 군유치원이 몰라보게 일신되고 동방고급중학교를 비롯한 군안의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게 되였으며 군인민병원과 리진료소들을 개건하고 의료봉사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모든 사업에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이 늘 현실속에 들어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실태를 정확히 알며 군중의 목소리에서 일감도, 그 수행을 위한 올바른 방책도 찾도록 하였다. 일부 주민지구에서 몇년동안 물고생을 한다는것을 알고 물문제를 해결해준것도,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과의 사업에 품을 넣어 그들이 영원히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해나가게 한것도 일군들이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 심부름군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명심하고 헌신적으로 일한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려는 투철한 정신과 사업기풍을 지니고 투쟁해나갈 때 우리 당정책은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데서 군당위원회가 깊은 주의를 돌린것은 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소유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실력이자 사업실적이다. 일군들이 실력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많이 쓰고 분주히 뛰어다녀도 인민을 위하여 뚜렷한 흔적을 남길수 없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일군들이 자기 부문의 당정책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는데 보를 박고 투쟁하여왔다. 당정책학습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상관점과 직결된 문제로 내세우고 책임일군들부터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과 관련한 절세위인들의 로작학습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였다. 문답식학습경연과 학습담화를 자주 조직하여 일군들이 창성련석회의정신을 비롯한 당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하는 한편 그것을 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강연회, 강습, 록화편집물시청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농업, 축산, 양어와 관련한 과학기술학습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일군들 누구나 자기 부문에서 모르는것이 없고 전문지식도 습득하도록 교양사업을 근기있게 벌리고있으며 군미래원을 과학기술보급기지답게 훌륭히 꾸리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 일군들부터 앞장서도록 운영을 짜고들고있다.

이 나날 군안의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과 자질이 한단계 올라서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아 학위를 받은 일군들의 대렬도 늘어나고있다. 군에 있는 고려약공장에서 상비약과 대중약 생산기지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것도 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지니고 과학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일군들의 실력을 부단히 높일 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군에 있는 자기의것을 가지고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일정한 성과는 거두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많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사상리론을 당사업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감으로써 우리 염주군을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락원으로 보다 훌륭히 꾸려나갈것이다.

염주군당위원회 위원장 량 명 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의 전투력을 높이 떨치자

일군들의 옳은 관점은 성과의 담보

해주시당위원회 사업에서

최근 해주시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불타는 애국열의와 창조적사색을 기울이며 현실이 요구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종자로 잡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성과들을 이룩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좋은 점은 소조파견단위 당, 행정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소조원들의 사업을 잘 밀어주도록 한것이다.

이 사업에 품을 넣게 된 동기가 있다.

지난해 시당위원회에서는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 출품할 기술혁신안들에 대한 료해사업을 진행하였다.

시안의 소조원들의 사업을 놓고 우열함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시당위원장은 하나의 문제점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당, 행정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단위들에서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출품되고있는데 그렇지 못한 단위에서는 좋은 기술혁신안들이 출품되지 못하고 있었다.

시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십여개 단위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수십명이나 되였다. 그들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한가지씩만 내놓아도 대단한 수자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있는가.

당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어졌다.

당에서는 대학졸업생들가운데서 당의 경제건설구상을 과학기술성과로 빛내여나가려는 각오와 결심이 투철하고 높은 과학기술적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대상들을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하였다. 그런데 해당 단위에서 실적을 내는 소조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소조원들도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책임일군은 해당 부서를 통해 료해사업을 심화시켰다.

이 과정에 소조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그 단위 당, 행정일군들의 관점문제에 기인된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소조사업이 잘되는 단위의 일군들은 례외없이 소조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을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었다. 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있었다. 하지만 일부 단위들에서는 파견된 소조원들이 몇명 안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어주지 못하고있는가 하면 어떤 일군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그들이 무슨 큰일을 치겠는가고 하며 낯을 적게 돌리고있었다.

그러니 이런 단위들에서 어떻게 소조원들의 기술혁신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는가.

시안의 전반적인 소조사업에 대한 료해를 통하여 시당책임일군은 소조원들의 사업성과는 파견단위 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아래단위 당, 행정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도록 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는 당, 행정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3대혁명소조운동을 당의 의도에 맞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웠으며 소조파견단위들에서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조원들을 대담하게 인입시키고 강하게 내밀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3대혁명소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한 조직사업을 진행해나가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일본새는 시안의 당, 행정일군들에게 3대혁명소조운동은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세워주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특히 소조파견단위의 당, 행정일군들이 소조원들의 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제때에 풀어주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 행정일군들의 사업총화에서 소조사무실을 제대로 꾸려주지 못한 일군들을 강하게 총화하고 시급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또한 소조원들의 기술혁신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군들이 제때에 알고 풀어주도록 장악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은 훌륭한 결실로 이어졌다.

소조사업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소조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해결해주기 위해 마음쓰고 신발창이 닳도록 뛰는 일군들이 늘어났다.

해주련결농기계공장의 일군들은 소조원들이 벼종합탈곡기를 창안제작하는데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적극 밀어주고 공장의 기술력량도 인입시켜주어 소조원들의 노력이 응당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석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일군들은 소조원들이 나래짜는기계를 창안제작하기 위한 기술혁신안을 내놓았을 때 적극 지지해주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어 소조원들의 창조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서미협동농장의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농업생산에서 한몫 단단히 할수 있게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긍지감을 안고 기술혁신에 전심전력하여 높은 기술혁신성과들을 이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올해 서미협동농장에서는 도적인 방식상학이 진행되였다.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 해주구두공장, 해주기초식품공장의 당, 행정일군들도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올바른 방법론에 기초하여 소조원들의 기술혁신과제수행을 적극 추동해나갔다.

올해 제5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 해주시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출품하였으며 여러 기술혁신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시당위원회가 3대혁명소조운동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소조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준 결과이다.

해주시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일군들이 현시기 3대혁명소조사업을 그토록 중시하는 당의 의도에 맞게 옳은 관점을 가지고 소조원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줄 때 그 생활력을 높이 발휘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혁철

순간의 자만도 답보도 없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문제,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술혁신의 종자로 찾아쥐고 연구를 심화시켜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남비정련로의 수명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내화물을 연구도입한것을 비롯하여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하는 큼직큼직한 기술혁신과제들을 맡아해제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명수행에서 련이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소조원들은 인발강판직장 가열로현대화공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을 올해의 중점과제로 정하고 년초부터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러던 지난 3월 어느날이였다.

3대혁명소조원들과 마주앉아 기술적문제들을 토의하던 한 기술자가 문득 이런 말을 했다.

《전동변을 자체로 제작할수 있는 방도가 없을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소조원들은 쉽게 대답할수가 없었다. 전동변은 무연탄가스와 공기의 류량을 자동조절하여 로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공기연료비를 보장하여주는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의 핵심설비들중의 하나였다. 그 제작기술에 대한 파악도 전혀 없었다.

그날 저녁 3대혁명소조원들은 전동변제작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박철심동무를 비롯한 소조원들은 어려운 과제를 자기들에게 맡겨줄것을 제기하였다. 생산정상화와 현대화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들은 응당 3대혁명소조원들인 자신들이 맡아수행해야 할 몫이라고 하면서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할 결심들을 표명하였다.

정명기, 박철심, 최정국동무들로 연구조가 조직되였고 불같은 탐구의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이 분야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는것으로 하여 기술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던것이다.

제일 걸린 문제는 나비변을 정밀조종하는 수자식조종회로제작과 조종프로그람을 완성하는 문제였다.

수많은 기술문헌들을 조사하고 과학연구기관의 연구사들과 기업소기술일군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한치한치 전진해나갔다.

마침내 그들은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동변시제품을 완성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업소 일군들의 지지와 방조밑에 전동변시제품을 더욱 발전완성시켰고 해당 기관에 나가 현대화공사에 필요한 10여대의 전동변을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부정형내화재료인 알루미나세멘트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인발강판직장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에 전면도입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알루미나세멘트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운 김철진, 오철진, 김동선동무를 비롯한 소조원들은 기업소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생산방법을 확정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회전가열로축조에 필요한 많은 량의 알루미나세멘트를 생산하는데도 적극 이바지하였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와 기업소현대화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해나가고있는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의 투쟁기풍은 말해주고있다.

순간의 자만이나 답보도 없이 기술혁명수행의 돌파구를 언제나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3대혁명전위들만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 떳떳이 불리울수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척후병이 되여

정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최근 정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연구도입하여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춘의 열정과 창조적인 지혜를 다 바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두해전 공장 3대혁명소조책임자로 임명받은 김명원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3대혁명소조가 높은 기술혁신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년한이 오랜 소조원들은 품이 드는 기술혁신안들을 과제로 정했다가 완성하지도 못하고 소조기간을 끝마치게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조사업을 갓 시작한 동무들은 현장실정에 밝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한것으로부터 기술혁신목표를 통이 크게 설계하지 못하고있었다. 결국 소조에서는 당시 진행된 도적인 기술혁신전시회에 별로 자랑할만 한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지 못하였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모대기는 그에게 힘을 준것은 공장초급당일군이였다.

김명원동무와 마주앉은 초급당일군은 소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주면서 무엇보다도 소조원들의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분출시킬데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초급당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명원동무는 집체적지혜를 발동하는 방법으로 기술혁신에서 전환을 가져올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이튿날 소조원들앞에 나선 그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자고 호소하였다. 지식이 모자라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으면 집단의 위력으로 뚫고나가자는 그의 말에 소조원들은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그때부터 3대혁명소조원들속에서는 집단주의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사업년한이 오랜 소조원들이 앞장에 섰다. 그들은 경험이 부족한 소조원들이 공장의 실태를 하루빨리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에 함께 나가기도 했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종자도 주면서 고무해주었다.

3대혁명소조에서는 기술혁신과제수행과 실력향상을 위한 학습에서도 집단주의기풍을 적극 발휘하였다. 실력을 높이는데서 외국어학습을 중시한 3대혁명소조에서는 소조원들속에서 매일 2시간이상 외국어학습을 진행하는것을 생활화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어수준이 낮은 동무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 누구나 마음을 썼다.

집단주의기풍은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3대혁명소조원 허광명동무가 열처리작업반에 있는 로들의 온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할 때였다.

그가 온도측정의 정확성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고심한다는것을 알게 된 소조원들은 자기들의 일처럼 여기고 적극 도와나섰다. 장치구성과 프로그람작성을 도와주는 소조원도 있었고 조수가 되여 여러차례의 실험을 함께 보장해주는 소조원도 있었다.

집단의 위력으로 완성한 기술혁신안은 공장의 생산정상화와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였다.

소조원들은 신심드높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연구과제로 정하고 공장기술집단과 힘을 합쳐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였다.

쇠물정량주입장치, 용융금속탄소-규소고속분석기 등은 전국적인 기술혁신전시회에서 1등을 쟁취하였으며 구상화률분석기제작을 비롯한 수많은 기술혁신과제들이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이들이 이룩한 성과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청춘의 열정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집단주의위력을 높이 발휘할 때 성공의 지름길을 열수 있다는것을.

리춘식

목표는 높이, 실천은 완강하게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한 기세드높이 2.8비날론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이 올해를 기술혁신성과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기술혁신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그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기술혁신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신년사를 받아안고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목표를 높이 세웠다.

그들은 기술혁신목표를 단위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세우고 피타는 사색과 탐구, 기발한 착상으로 수십건의 알찬 기술혁신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초산합성탑에 주입되는 알데히드류량측정체계를 개조하여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한것을 비롯하여 련합기업소의 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룩한 성과들은 자랑할만 하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3대혁명소조에서는 앞으로 수행할 기술혁신목표들을 재확인하고 그에 힘을 집중해나가고있다. 3대혁명소조책임자 박영철, 소조원 김수련동무들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과류산암모니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과류산암모니움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할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연구완성하기 위해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기술혁신전투를 긴장하게 진행하고있다.

기술혁명수행에서 척후병, 기수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칠 불타는 맹세를 안고 소조원 김정성동무는 생산정상화를 위한 프로그람을 작성한데 기초하여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소조원 강일광, 박광혁동무들은 기술혁신목표를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세우고 초미분쇄기제작을 위한 연구, 폴리비닐알콜로 고무바킹을 대용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이밖에도 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지금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뜻깊은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각오를 안고 기술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는 단천제련소 **3대혁명소조원들**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남덕청년탄광 3대혁명소조원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앞장서고있다.

올해 봄, 석탄생산으로 들끓는 막장과 생산현장들에 들어가 기술혁신과제수행에 전심하고있던 김국동무를 비롯한 소조원들은 탄광에 사장되여있던 철판절단기를 살려내는 문제가 제기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그 과제를 자신들에게 맡겨줄것을 제기했다.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탐구전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철판절단기를 살려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탄차베아링완충띠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오늘도 이곳 소조원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기술혁신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전형창조와 일반화사업을 짜고들어

농근맹중앙위원회와 각지 농근맹조직들에서

농근맹중앙위원회와 각지 농근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다른 단위들에 일반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입니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우리 당에서 제시한 알곡생산목표수행의 기본열쇠가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년초부터 모든 농근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서 큰 힘을 넣은것은 농근맹위원회적인 전형단위들을 창조하고 모든 농근맹조직들에서 그 단위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게 하는것이였다.

그를 위해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를 정하는 문제에 깊은 주목을 돌리였다.

그것은 전형단위를 잘 정해야 뜻깊은 올해의 영농전투에서 증산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기때문이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숙천군농근맹위원회와 열두삼천농장 초급농근맹위원회를 전형단위로 정하고 이 단위들과의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이곳 농근맹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농근맹위원회의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농근맹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농근맹일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이 단위들이 온 나라 농근맹조직들의 전형단위답게 사상교양사업과 당면한 영농전투 등에서 앞장서 달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도, 시, 군농근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의 농근맹조직들에서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평안북도농근맹위원회에서는 룡천군농근맹위원회와 령도업적단위인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초급농근맹조직을 전형단위로 내세우고 모든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농장벌마다에 애국의 땀을 묻어가게 하고있다.

함경남도농근맹위원회에서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령도업적단위 농근맹조직들이 앞장에 서도록 잘 이끌어주어 도안의 농장벌들이 알곡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연안군농근맹위원회에서는 령도업적단위인 봉덕협동농장 농근맹조직을 전형단위로 설정하고 군안의 모든 농근맹조직들에서 이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포전들마다에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게 하였다.

이밖에도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온천군 송현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농근맹중앙위원회와 각지 농근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에 따라 사회주의전야마다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경쟁열풍은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전천군일군들

최근 전천군 소재지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날을 따라 변모되여가고있다.

사상교양의 거점인 군혁명사적교양실이 훌륭하게 일떠서고 읍지구의 중심도로가 새롭게 포장되였으며 그 주변에 있는 백수십동의 아빠트들이 여러 색갈의 외장재로 특색있게 단장되여 군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든 사업의 설계가, 작전가, 실천가가 되여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군일군들의 창조적이며 완강한 일본새가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해당 단위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피타게 사색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갈 때 당정책관철에서는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우리는 전천군일군들의 사업에서 다시금 찾아보게 된다.

지난 4월 어느날 군의 책임일군으로 사업하게 된 김광명군당위원장은 어깨가 무거워짐을 다시금 깊이 느끼였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하여 통이 크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여러 일군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군당책임일군은 일부 일군들이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 다음날 군당위원회의 어느 한 방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대중을 불러일으킨다면 못해낼 일이 없고 뚫지 못할 난관이 없습니다.》

군당위원장의 말은 짧았어도 여운은 컸다.

곧 이미 공사중에 있던 군혁명사적교양실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군당책임일군은 이 사업을 계기로 군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기로 하였다.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군혁명사적교양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었다.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자기들의 깨끗한 마음을 바치였다.

군의 책임일군들부터 현장에서 일도 함께 하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현장협의회만 하여도 10여차례나 진행하였고 필요한 자재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군혁명사적지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몫 단단히 맡아나섰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가 벌어진 결과 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군혁명사적교양실을 훌륭히 일떠세우게 되였다.

군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을 읍지구의 중심도로포장공사와 그 주변의 백수십동의 아빠트들을 보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계속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때 문제의 초점으로 된것은 두 대상공사를 동시에 내미는 조건에서 필요한 로력과 자재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군당위원장은 일군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군의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자.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인민반들에 나가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군일군들이 잘한것은 하수망공사를 선행시키면서 한개 호동의 아빠트를 본보기로 꾸려놓고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대중의 열의는 한층 더 고조되였다.

일군들의 통이 큰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하여 어렵다고 생각했던 도로포장과 아빠트보수공사에 필요한 세멘트, 외장재 등 많은 자재들이 마련되였다. 또한 걸음길에 깔 수만장의 보도블로크도 일군들은 읍지구의 녀맹원들을 발동하여 수십일동안의 전투를 벌려 해결하였다.

일군들부터 걸린 문제들을 풀기 위해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한가지씩 맡아안고 발이 닳도록 뛰였다. 앞채를 메고 헌신하는 일군들의 일본새는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이른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현장들을 메주밟듯 하면서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였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대중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한것이였다.

도로포장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읍지구의 주민들도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아빠트보수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결과 도로포장공사와 아빠트보수 및 외장재바르기전투는 각각 한달 남짓한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이밖에도 군에서 올해에 거둔 성과는 많다.

군소재지의 면모가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일신된것은 물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일본새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경험은 일군들이 능숙한 작전가, 실천가가 되여 만짐을 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헌신할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없으며 당정책관철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이룩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에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자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번지는 버섯생산열풍

전국버섯재배기술경험발표회에 참가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따라 일떠서고있는 축산과 수산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전국도처에 건설한 양어장과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에 버섯생산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속에 얼마전 인민대학습당에서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버섯재배기술경험발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전국의 버섯생산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근로자들의 관심속에 해마다 의의있게 진행되군 하는 이 기술경험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 류경버섯공장, 남포시, 해주, 함흥버섯공장 등 각지의 크고작은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온 200여명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 버섯재배공들이 참가하였다.

발표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 기술교류소 소장 윤행산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능력이 큰 현대적인 버섯공장들을 비롯한 각지의 버섯생산기지들에서는 당의 뜻대로 자기 지방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원가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의 생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그 과정에 이룩된 가치있는 성과와 경험들이 론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각 도버섯공장들에서 3대혁명소조원들도 많이 왔는데 그들의 열성이 보통이 아니라고,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적은 원가로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려는 버섯생산자들의 열의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것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된다고 기쁘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을 들을수록 저 멀리 함경북도와 자강도에서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자기들의 경험을 발표하기도 하고 앞선 재배기술을 열심히 배우기도 하는 버섯생산자들의 진지한 모습이 후덥게 안겨왔고 온 나라에 타오르는 버섯생산열풍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버섯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 그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셨던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버섯연구기지를 일떠세워주시고 조국땅 방방곡곡에 크고작은 현대적인 버섯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해주시여 버섯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2일간에 걸쳐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버섯병해충막이기술과 폐기질을 원료로 하는 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기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였다.

그리고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 연구사들, 각 도의 현대적인 버섯공장들과 각지의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온 기술자들, 버섯재배공들의 경험발표가 진행되였다.

발표회에서는 쌀겨대신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에서 연구한 첨가제를 받아들여 흰곤봉버섯생산원가를 훨씬 낮춘데 대한 남포시버섯공장 3대혁명소조원의 경험과 궁륭식박막온실에서 버섯의 여러그루재배기술에 대한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 연구사의 경험이 1등으로 평가되였다.

능력이 큰 각 도버섯공장들과 함께 시, 군, 공장, 기업소들, 협동농장들에서까지 버섯생산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대용원료연구에 큰 힘을 넣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더우기 한해에 수백t의 버섯을 생산해야 하는 현대적인 버섯공장들에서 대용원료문제는 미룰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러한 때에 지난해 상반년에 첨가제도입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하반년부터는 그것을 리용하여 쌀겨를 전혀 쓰지 않고 흰곤봉버섯을 생산하고있으며 그 경험을 가지고 지난 3월에는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까지 진행하였다는 남포시버섯공장 3대혁명소조원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궁륭식박막온실에서 계절적특성에 맞는 버섯품종들을 선택하고 년중 4회전재배를 실현하여 수확고를 훨씬 높인데 대한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 연구사의 경험발표도 인기를 끌었다.

발표회에서는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 류경버섯공장, 해주버섯공장 등 여러 단위들에서 발표한 《멸균로에서의 려과장치도입》, 《버섯파리유인포집기의 리용》, 《흰곤봉버섯폐기질과 〈천연광물다기능성영양제1〉호의 합리적인 리용방도》, 《〈버섯잡균억제제1〉호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여러건의 안들이 2등으로 평가되였다.

뿐만아니라 함흥버섯공장 3대혁명소조원의 《새로운 대용원료인 옛밤을 리용한 버섯생산》,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버섯분조장의 《각이한 시설재배장에서 사계절 버섯생산을 높인 경험》, 항구구역 신흥협동농장 버섯책임자의 《버겨를 버섯균보호제로 리용한 효과》, 명천군 사리협동농장 버섯재배공의 《나무이지와 잠관목에 의한 버섯재배방법》, 평양시의 어느 한 공장에서 일하는 정광림동무의 《반궁륭식온실에서 활성감람원종균에 의한 느타리버섯재배와 겨울철 온돌식발효의 효과성》 등 많은 발표자들의 경험들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발표회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틀동안에 우리는 당의 뜻대로 버섯재배에서도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각지 버섯생산자들의 드높은 열의를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이번 발표회는 나라의 버섯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실현을 적극 추동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장은영

새 품종 남새생산을 늘인 비결

평성시 삼화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평성시 삼화남새전문협동농장이 전국에 소문을 내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지난 시기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체의 힘으로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련동식온실을 건설한데 이어 저회함량성수관수기술, 자동창온중발기와 같은 앞선 기술과 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여 온실남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이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특히 분홍시금치, 주름도마도, 노란사자고추와 같은 새 품종도입에 주목을 돌리였다.

이때 일군들은 심사숙고하였다. 그것은 농장원들이 새 품종들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고 재배를 잘할수 있는 기술적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단위면적당 생산목표가 높고 고정된 몇명의 인원으로 관리를 진행하는 온실남새재배에서는 농장원 한사람한사람이 다 자기 몫을 원만히 수행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일군들은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당에서는 지금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여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을것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 당에서 바라는대로 남새품종수와 생산을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농장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

높은 책임감을 안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는 일군들의 눈에 모든것이 새롭게 비껴들기 시작하였다.

우선 일군들은 해당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새 품종 남새재배와 관련한 선진기술을 배워오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농장원들에게 새로운 품종재배기술을 인식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를 찾아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일군들은 매일 호동들에 나가 새로운 작물재배에서 제기되는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농장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접재배방법을 비롯한 다수확재배기술을 모든 농장원들에게 원리적으로 인식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호동별로 지난해농사경험과 교훈을 옳게 분석총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앞선 호동과 자기들의 재배방법을 대비해보며 어느것이 우월한가를 대중스스로가 인식하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였다.

결실은 좋았다.

농장원들의 기술학습열의가 높아지고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하기 위한 사색과 실천이 혁신적으로 전개되여 모든 작업반들이 새 품종 남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의 생산실적을 낸 농장에서는 지금 새 품종 남새를 비롯하여 더 많은 온실남새를 생산하기 위해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적은 원가로 최대의 실리를

정방산버섯공장에서

정방산버섯공장에서 10월말현재 맡겨진 생산계획을 101%로 넘쳐 수행하였다. 보다 주목되는 성과는 적은 원가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의 생산실적을 낸것이다.

비결은 이곳 일군들이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원가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의 경영관리를 짜고든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목화씨껍질을 대용기질로 리용하고있는것이 좋다.

수백t생산능력의 공장에서 해마다 소비하는 강냉이속량은 간단치 않았다.

물론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강냉이속보장사업을 틀어쥐고 떠밀어주고있었다.

하지만 온 나라에 버섯생산열풍이 일어번지는 속에 도안의 모든 시, 군,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도 버섯재배열의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 현실은 대용기질리용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켜주고있었다.

바로 그런 때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대용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당정책에 접한 지배인 문혜순동무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공장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과학기술보급실에서 버섯재배와 관련한 자료들도 열심히 탐독해나갔다.

그 과정에 도에서 적지 않게 나오는 목화씨껍질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성분을 분석해보니 기름함량이 높았다. 결국 목화씨껍질을 리용하면 강냉이속은 물론 쌀겨도 훨씬 절약할수 있었다.

공장에서는 당면한 생산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동시에 강냉이속대신 목화씨껍질을 대용기질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완강하게 내밀었다.

여러차례의 시험끝에 공장에서는 목화씨껍질을 리용하여 버섯생산을 늘일수 있는 리상적인 대용기질혼합처방을 찾아내게 되였다. 그리고 도입사업에 힘을 넣어 해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목화씨껍질을 대용기질로 리용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목화씨껍질의 영양원소함량이 높아 쌀겨소비량을 절반이나 줄이니 좋고 강냉이속을 쓰지 않으니 그것을 분쇄하는데 들던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여 좋았다. 지금 공장에서는 이 대용기질리용률을 40%로까지 높이고있다.

오늘 공장의 버섯생산에 크게 이바지되고있는 다기능영양강화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산원가를 줄이고 원료당 수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 꾸준히 사색하고 탐구하며 노력하던 나날에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도에 흔한 원료와 자재에 의거하는 다기능영양강화제를 새롭게 창안제조하게 되였다. 지난 8월 제16차 국가발명전람회에도 출품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 천연광물영양제는 공장의 종균생산으로부터 재배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이면서 원료당 수확률을 훨씬 높여주고있다.

공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봉지세척기와 다기능초미분쇄기를 제작설치하여 지난 시기 한번밖에 쓰지 못하던 봉지를 여러번 재생리용하고 시간당 분쇄능력을 6배로 높여 많은 원가와 에네르기를 절약하면서 생산을 늘이고있는것도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운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최대로 절약하며 증산할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 높은 목표밑에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생산토대축성에서 중시한 문제

항구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직속 남새온실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구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직속 남새온실작업반이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하고있다.

온실남새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할수 있게 통합생산체계를 구축, 자동변에 의한 방울식관수체계 확립,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는 나래감는장치를 제작설치, 오이사이그루로 큰모에 의한 봄통배추를 재배하는 방법 확립…

이처럼 작업반에서는 온실남새생산을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놓았다. 하기에 이곳 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재배면적이 1만㎡인 남새온실에서 해마다 오이, 통배추를 비롯한 수백t의 온실남새를 생산하고있다.

이 성과들은 과학기술을 앞세워야 자력갱생할수 있고 비약의 룡마를 탈수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는 작업반장 림순화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의 완강한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작업반에서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는 나래감는장치를 제작설치한 사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지난 시기 작업반에서는 대기온도가 낮을 때에는 비닐박막온실에 나래를 씌우거나 벗기는 방법으로 온실남새가 자라는데 필요한 온도를 보장하군 하였다. 그런데 나래작업에 드는 품이 적지 않았다. 한개 호동의 나래를 한번 씌우거나 벗기려면 2명의 관리공이 30분이상 작업해야 하였다.

이것을 놓고 초급일군들은 생각이 많았다.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기계화하여야 온실남새생산에서도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나래를 씌우거나 벗기는 작업을 기계화하는 문제를 기어이 해결하자. 이런 각오밑에 초급일군들이 떨쳐나섰다. 하지만 한개 호동에 씌우는 나래의 무게만 하여도 여러t이나 된다는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였다.

그럴수록 초급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갈 열의안고 분발해나섰다. 그들은 구역당일군들의 지지와 지원속에 많은 자재들을 해결하고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특히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는데 맞게 1.5kW전동기 두대로 한개 호동의 나래감는 장치를 동작시키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었다.

여러차례의 실패도 있었다. 그러나 초급일군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모두의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끝에 나래감는 장치제작에서 관건적인 고리인 원치차가 합리적으로 가공되였다.

나래감는장치가 성공적으로 동작하는 광경을 보면서 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서로 얼싸안았다. 그리고 제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는것을 다시금 새기게 되였다.

과학기술을 앞세워 온실남새생산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갖추는데 힘을 넣고있는 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의 노력은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함흥남새전문농장에서-

-류경버섯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림 찍음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진행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합의에 따라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안익산 조선인민군 륙군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김도균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 부속 군사합의서의 첫 단계 실행정형을 총합적으로 점검총화하였으며 다음단계 리행에서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을 론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전국신발전시회-2018》 페막

《전국신발전시회-2018》이 페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와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의 60여개 단위에서 생산한 수만점의 제품들이 출품되고 수십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론문들이 제출되였다.

연 15만여명의 참관자들로 련일 성황을 이룬 전시회에서는 원산구두공장, 류원신발공장, 신천해동공장 등에서 내놓은 신발들이 형태가 다양하고 맵시있을뿐아니라 가벼운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새로운 구조방식의 직접사출형타설계》, 《재생고무와 파열가소성합성체의 혼합특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여러건의 론문들이 높이 평가되였다.

페막식이 26일 평양제1백화점에서 있었다.

내각부총리 리주오동지, 경공업상 최일룡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군들, 연구사,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3대혁명소조원, 로동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페막식에서는 우수한 단위들과 론문제출자들에게 상장, 메달 등이 수여되였다.

리주오동지가 페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들이 즐겨찾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스웨리예국왕을 작별방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3일 스웨리예왕국 국왕을 작별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까를 구스따프 16세국왕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강용덕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국왕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국왕은 최근 조선반도정세에서 긍정적변화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조선에서 모든 일이 잘되여나갈것과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사이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조선로동당과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사이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협정이 25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과 김형준 로씨야련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총리사회 비서 안드레이 푸르샤크를 비롯한 당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류명선동지와 안드레이 푸르샤크비서가 협정문에 수표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이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최고리사회 위원장을 만났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로씨야에서 열린 아시아정당들의 국제회의 제10차총회에 참가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가 24일 보리스 그리즐로브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최고리사회 위원장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보리스 그리즐로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과 통일로씨야당사이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에 대하여 언급하고 앞으로 두 당사이의 쌍무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날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은 인디아인민당,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로씨야련방공산당, 일본공산당 등 여러 나라 당대표단 단장들을 만났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김일성경기장에서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부류축구련맹전 마지막경기인 4.25팀과 리명수팀사이의 경기가 29일에 있게 된다.

빙상관에서 15일에 시작된 공화국선수권대회 빙상호케이 남, 녀경기가 30일까지 진행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련방 외무성

국제기구국대표단 귀국

미끼엘 아가쌴잔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외무성 국제기구국대표단이 26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전송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은 외무성 부상 박명국동지를 비롯한 해당 일군들을 만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의 협력과 조로쌍무관계발전 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견해일치를 보았다.

의학연구원에서

의학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연구성과 이룩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의학연구원에서 의학과학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약학연구소 연구사들은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만만한 야심과 배짱을 지니고 탐구적, 창조적인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새로운 의약품들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불타는 정열과 노력으로 안과질병치료와 수술, 눈보호에 필요한 여러종의 눈약들을 연구완성하였다.

효능이 높은 새로운 의약품을 더 많이 만들어 치료사업에 이바지할 열의밑에 이곳 연구사들은 우리 나라에 흔한 섬유소로 장용교갑을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약물형태개선에 적극 기여하였다.

고려약과 신약을 배합한 복방감기약도 치료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우리의 제약공업을 하루빨리 추켜세우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합성제약연구소 연구사들은 유선질병치료에 쓰일 레트로졸알약을 만들어낸데 이어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치료에 효과적인 페노피브라트알약도 개발하여 보건실천에 도입할수 있게 하였다.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연구사들은 임신부몸무게증가기준을 적용하여 저체중아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지도서를 완성하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환경위생연구소 연구사들도 두뇌전, 실력전을 벌려 10여종의 식료품과 식료품첨가제의 위생기준을 새롭게 완성하여 내놓았다.

의학연구원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연구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첨단돌파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로므니아외무성대표단 귀국

미헬라-까르멘 그레꾸 문화 및 과학외교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외무성대표단이 26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로므니아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일본체육대학대표단 귀국

마쯔나미 겡시로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체육대학대표단이 26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 리동수동지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교육부문 사업을 적극 도와주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이 중요하다

북청군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재는 나라의 재부인 동시에 도, 시, 군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인재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북청군일군들의 사업경험이 주목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나아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입니다.》

이곳 책임일군들의 사업에서 좋다고 본것은 우선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이끌어주는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고있는것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진행되는 교육지원전시회가 군안의 일군들을 각성분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많은 품을 넣고있다. 전시회장에서 책임일군이 직접 총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있는것, 전시회과정을 보여주는 다매체편집물을 잘 만들어 일군들을 분발시키고있는것 등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사상교양사업을 근기있게 진행하지 못한다면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을 일군들이 깊이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다.

올해 3월 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진행된 교육지원전시회장에는 지원물자들을 품들여 마련했다는것이 한눈에 안겨오는 전시대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전시대들도 있었다. 교육사업을 홀시하는 근시안적이며 본위주의적인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가 비낀 그런 전시대들앞에서 군당책임일군인 한영식동무는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날 전시회장에는 군당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준절하게 울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가 넘쳐나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그토록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데 아직도 교육사업을 강건너 불보듯 하는 일군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후대들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이 불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맡은 일을 잘할수 있겠는가.…

교육지원사업을 소홀히 대하던 일군들은 자책속에 얼굴을 들수 없었다. 그날 책임일군은 뒤떨어진 단위들로 교육지원전시회를 다시 조직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그 전시회준비과정이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되게 하기 위해 책임일군은 깊이 마음썼다. 결과 일군들이 모두 분발하여 수많은 교육지원물자들을 정성껏 마련함으로써 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렇게 교육중시기풍이 서가는 속에 이번 10월 학교지원월간에는 지난 전시회때보다 더 많은 지원물자들이 마련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본보기학교들인 봉전기술고급중학교와 룡동고급중학교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군유치원이 안팎으로 멋쟁이로 개건되고있으며 군교원재교육강습소에 원격강의실과 봉사기실 등을 갖춘 새 건물이 일떠서고있다.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자동차, 뜨락또르운전모의실습기재와 지리학습려종합조종장치를 만들어낸데 이어 모든 학교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것은 군안에 본보기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이곳 교육자들은 올해에 근 100개에 달하는 학교, 유치원들의 위대성교양거점들이 하나같이 훌륭히 꾸려진것을 커다란 긍지로 여기고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군당책임일군은 군안의 교육단위들을 다시한번 통이 크게 일신시킬 계획을 세웠다. 먼저 위대성교양거점들부터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로 결심한 책임일군은 라하고급중학교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군안의 일군들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그날 현지에서는 모든 학교들의 위대성교양거점들을 짧은 기간에 일신시키기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책임일군은 군당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하여 몇달사이에 학교들뿐만아니라 유치원들에서까지 위대성교양거점들을 보다 정중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군에서는 농촌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도 영웅신창고급중학교에서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고있다. 분교꾸리기사업 역시 룡산고급중학교의 낡은 분교를 허물고 새 분교를 멋있게 건설한 다음 그 수준에서 모든 분교들을 일신시켜나가고있다. 이렇게 본보기창조열풍은 군의 교육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이곳 책임일군들은 또한 교육사업을 말로써가 아니라 몸을 내대고 헌신분투하며 이끌고있다.

언제인가 바다가마을의 경치좋은 곳에 자리잡은 신창소학교가 뜻밖에 해일피해를 입은적이 있었다. 파도가 륙지에까지 무서운 힘으로 밀려나와 교사기초가 드러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이제라도 학교위치를 옮기는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었다. 일시적인 재난앞에 동요하며 아이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학교를 옮길수 없다고 책임일군은 생각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일군협의회를 열고 대담하게 해안방조제공사를 진행할것을 발기하였다. 모두가 놀랐다. 수백m나 되는 구간에 해안방조제를 쌓자면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가를 누구나 쉬이 짐작할수 있었던것이다.

책임일군은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탁틀과 세멘트, 철근을 비롯한 수많은 자재들을 해결해오는 한편 바쁜 속에서도 매일 현장지휘를 하였다. 그리고 방조제공사가 끝나자마자 교사개건전투를 벌려 학교의 면모를 환하게 일신시켰다. 그때 기쁨에 넘쳐있는 교원들과 학부형들, 학생들을 바라보며 군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고 한다.

이들처럼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은 나라의 중대사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에 서서 자기 단위의 교육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주인구실을 다해나갈 때 우리의 후대들은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역군들로 더욱 훌륭하게 자라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진정

령남배수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사회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후대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령남배수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는것도 미래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하여 투쟁하라는것입니다.》

남포시 와우도구역 서해고급중학교와 남포해운기술대학, 공장의 기능공학교와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있는 령남배수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결코 다른 단위들보다 조건이 좋아서 교육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아름찬 생산계획이 있고 공장에 해야 할 일거리들이 무수하다.

그러나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교육지원사업이 당의 숭고한 뜻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 내 조국의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올해에만 하여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액정텔레비죤과 콤퓨터, 태양빛전지판,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하여 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설비와 자재, 물자들을 마련하여 여러 교육단위들에 보내주었다.

일군들부터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견성있게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며 헌신적으로 노력하다보니 이제는 각 직장의 종업원들도 의례히 교육지원사업을 공장일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그것은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지배인과 초급당위원장은 거의 한달에 한번씩 교육단위들에 찾아가 제눈으로 직접 걸린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현지에서 료해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수량을 타산해보고 공장의 각 직장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해결방도를 토론한 다음 치밀한 조직사업을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일군들은 해마다 공장주변에 조성한 감나무밭에서 수확한 감을 탁아소와 유치원에 보내주고있으며 땔감보장과 부식물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각종 실험실습설비와 건설용 자재는 물론이고 교원들의 교수안작성에 필요한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교육지원과 관련한 모든 세부항목들이 일군들의 사업수첩에 적혀있고 그 집행정형에 대한 총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직장별로 교육단위들을 도와주는데서 발휘된 종업원들의 긍정적인 소행자료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얼마전에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서해고급중학교에서 학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울타리공사를 다시 한다는것을 알고 직장별로 구간을 맡아 짧은 기일내에 와닥닥 끝낼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조국의 전진속도가 빨라진다는 긍지, 학교를 돕는 일이자 곧 공장의 래일을 위한 사업이며 나아가서 조국의 더 좋은 앞날을 앞당겨오는 사업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있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서해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이곳 교육단위들의 면모는 나날이 일신되고있다.

생산현장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것과 함께 교육지원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근기있게 내밀고있는 령남배수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앞으로도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어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교육지원사업을 잘하고있다.
—대동강구역관정사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후원사업은 우리 사업

우시군산림경영소에서

10월에 들어와 우시군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학교지원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들끓고있을 때였다.

이때 남보다 먼저 교육설비들을 마련해가지고 자기 단위가 맡은 학교로 달려나간 일군들이 바로 우시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이였다.

하여 이 단위가 후원해주는 우시군 우시고급중학교에는 또다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늘어나게 되였다.

언제나 학교지원사업에 앞장서는 이곳 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 3월에도 학교에 실험실습실들을 새로 꾸린다는것을 알고 많은 량의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때에도 이곳 경영소의 일군은 종업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푸른 숲을 가꾸는것도 조국의 래일을 위한것이고 후대들을 위한것입니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는 사업만이 아니라 후대들을 위한 일에도 지혜와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갑시다.》

산림감독원들을 비롯한 경영소안의 모든 종업원들이 호응해나섰다.

그러한 나날속에 마련된 학교지원물자들을 안고 언제나 선참으로 학교를 찾군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 일군들이였다.

늘 마음속에 조국의 미래를 안고 사는 푸른 숲의 주인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고상한 인생관을 지니고 후대교육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이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더욱 굳건한것이다.

본사기자

새 분교에 비낀 소중한 마음

승호군일군들

승호군 삼청리에 들어서게 되면 새 분교가 번듯하게 일떠선것을 볼수 있다. 원래의 모습은 흔적도 찾아볼수 없는 이 교사가 바로 승호군 강남고급중학교 삼청분교이다.

이 분교에서 우리는 당의 후대중시, 교육중시사상을 받들어가는 승호군일군들의 일본새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학들과 학교들을 잘 꾸려주어 교육조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가 있은 후 군당위원회에서는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계획에 반영된대로 승호군 강남고급중학교를 군적인 본보기학교로 건설하는 사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여기에서 삼청분교건설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번 기회에 본교만이 아니라 분교도 번듯하게 다시 세워주자고 결심한 조건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난문제가 로력이였다. 군적인 형편을 보면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미 건설을 벌려놓은 대상들만 다그치자고 해도 아름찬것이였다. 따라서 로력해결은 좀처럼 가망이 없었다.

이때 군당책임일군은 군당위원회가 분교건설을 전적으로 맡아할것을 발기하였다. 그리고 빠른 시일안으로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군당의 매 부서들에서 일군들이 한명씩 선발되여 분교건설을 위한 건설력량이 조직되였으며 곧 분교운동장에는 천막이 꾸려지게 되였다.

그때부터 학교운동장으로는 세멘트와 모래며 철근 등을 실은 자동차들이 자주 들어서고 건설장은 밤을 모르는 전투장으로 화하였다.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숙식하면서 벽체를 쌓고 골조공사를 한 다음에는 또다시 총막공사와 내외부미장을 다그치면서 하루하루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원래 분교가 있던 자리에는 새 분교가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며 희한하게 일떠서게 되였다.

외벽도 환하게 단장되고 새로 꾸려진 학습터며 문화후생시설들과 교사내부 또한 도시학교들 못지 않게 번듯하게 꾸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실마다 콤퓨터와 액정텔레비죤이 그쯘히 갖추어지고 소학반 5학년생들이 공부하게 될 교실도 하나며 늘어나 교원들과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게 되였다.

학교설계도면에도, 외장재의 색갈에도,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해바라기와 연필, 축구공으로 장식한 학교울타리와 학습장을 펼친것처럼 제작한 교실출입문들의 시창과 교실마다 새로 제작하여 구비해놓은 책걸상마다에도 자기 고장의 미래를 위해 바쳐가는 뜨거운 지성이 어려있어 교사를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도 후덥게 달아올랐다.

분교를 자주 오가며 후대들을 위해 완벽한것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준 군당책임일군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울려나왔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분과장 리봉숙동무는 처음에는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동원된 건설자들로 생각하고있었는데 일을 접싸게 해제끼는 그들이 바로 분교건설을 위해 달려나온 당일군들이라는것을 알고는 정말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말하였다.

정말 당의 뜻을 받들어가는데서 당일군들이 어떻게 앞장에서 일하고 투쟁하는가를 보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후대들을 책임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결심을 터놓았다.

이렇듯 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충직하게 받들어 교육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솔선 도맡아나서는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교육자들의 영예와 긍지,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고 배움의 글소리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것을 우리는 승호군일군들의 교육사업에 대한 관점과 헌신적인 투쟁기풍에서 가슴깊이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공로혁

자랑하고싶은 고마운 사람들

원산시 해안소학교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10월 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원산시 해안소학교를 찾은 우리는 인민교원인 교장 조양숙동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얼마전 학교운동장으로는 한대의 화물자동차가 들어섰다.

원산백화점 지배인 한영순동무가 학교의 겨울나이용석탄을 가득 싣고온것이였다.

교장은 감동을 금치 못했다. 늘 학교를 위해 진심을 쓰는 지배인이 이번에도 남먼저 달려온것이 정말 고마왔던것이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교장에게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교육사업을 돕는것은 우리가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한개 단위의 일군으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할 일도 많은 그가 학교교육사업발전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쳐온 사실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교장은 정말 진실한 일군이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원산시맥주공장의 지배인 전철호동무가 또다시 화물자동차에 석탄을 가득 싣고왔다.

올해에도 교육사업에 필요한 교육설비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10월에는 겨울나이용석탄을 마련해가지고 달려온 그도 교장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이 학교가 교육사업을 잘해서 평가를 받군 하면 저도 얼마나 기쁘고 후원단체일군으로서 긍지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을 잘 키워주십시오.》

우리도 후대들을 위한 애국의 마음으로 학교를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는 일군들의 그 진정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의 심정을 가늠해본듯 교장이 이런 말을 덧붙이는것이였다.

《이런 일군들을 꼭 소개해주십시오.》

본사기자

우리 사회에 넘치는 미덕의 향기

각지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각지 독자들이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치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고결한 혁명적의리의 미풍을 전하는 편지를 본사편집국으로 보내오고있다.

그 편지들을 보며 우리는 온 사회에 넘치는 미덕의 향기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다시금 가슴깊이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고있습니다.》

만경대구역 금성3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황의성동무의 어머니는 자기 가정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고있는 만경대구역 갈림길2동 초급녀맹위원장 전영숙동무와 녀맹원들의 소행을 편지로 알려왔다.

황의성동무의 어머니가 갈림길2동의 녀맹원들과 인연을 맺게 된것은 만경대갈림길혁명사적비 관리원으로 일하던 때였다고 한다.

매일과 같이 만경대갈림길혁명사적비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던 녀맹원들은 관리원의 아들인 황의성동무가 군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게 사경에 처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영숙동무는 관리원의 집을 찾아가 우리가 잘 도와주겠으니 락심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힘을 내야 아들이 일어설수 있다고 고무해주었다.

그때로부터 그의 가정을 돕는 일은 동초급녀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되였고 그의 집으로는 전영숙동무와 갈림길2동 녀맹원들의 발길이 끊길줄 몰랐다. 그 지성에 떠받들려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던 황의성동무가 의식을 회복하였고 침상에 누워 운신도 못하던 그가 지금은 그들이 마련해준 세바퀴차를 타고 만경대고향집도 찾을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보통강구역 붉은거리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신철룡동무도 친누이가 되여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고있는 보통강구역 경흥동에 살고있는 한진옥동무의 소행을 편지로 전하여왔다.

《제가 한진옥녀성을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전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 제가 세바퀴차를 타고 보통강구역의 어느 한 언덕길을 오르고있는데 한 녀성이 달려와 힘껏 밀어주며 집까지 바래워주는것이였습니다. 어디서 사는 누구인가고 묻자 그는 웃으며 후날 꼭 다시 만나자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그가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우리 집을 찾아온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연을 맺은 때로부터 벌써 4년이 되였습니다. 그동안 있은 고마운 일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가 영예군인인 저에게서 바라는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당에서 바라는대로 전진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숙하지만 제 마음을 담은 시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을 고무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려는 결심을 더욱 가다듬게 됩니다.》

김책시 호동리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김경철동무는 김책수산사업소 3대혁명소조원 김혜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여왔다.

8년전 어느날 김혜동무는 우연히 자기 고장에 김경철이라는 영예군인과 전쟁로병인 그의 아버지가 살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생활에서 얼마든지 스쳐지날수 있는 일이였지만 김혜동무는 김경철동무의 가정에 대하여 잊지 않고 며칠후 생일을 맞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때부터 김혜동무의 발걸음은 김경철동무의 집으로 계속 이어졌다. 적적해할새라 새 천연색텔레비죤과 도서들을 마련해주고 맛있는 음식들도 준비해가지고 땀을 흘리며 집으로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김경철동무와 그의 온 가정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밖에도 많은 독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활짝 꽃펴나는 가지가지의 미풍들을 전하는 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사는 곳도 직업도 나이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속에는 한결같이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공민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는 아름다운 지향이 간직되여있다.

독자들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낸 우리 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다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김송이

동지적의리심을 안고 변함없이 걷는 길

문수각 일군들과 종업원들

대동강구역 문수1동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 김광호동무의 집에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가득차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문수각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명절날, 휴식일은 물론 때없이 찾아와 진정을 바쳐오는 나날에 그들은 영예군인가정과 한식솔이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동지적의리심을 안고 그들이 걸어온 량심의 길에는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감동깊게 엮어져있다.

몇해전 어느날 저녁무렵 낯모를 한 녀성이 김광호동무의 집문을 두드리며 들어섰다.

의아해하는 영예군인과 안해에게 《제 새로 온 문수각 지배인입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김광숙동무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정이 차넘쳤다.

그날 영예군인과 안해는 새 지배인에게 10여년전부터 자기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는 문수각 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고결한 의리심을 간직하고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여온 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영예군인과 안해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지배인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더우기 침상에 누워있는 몸이지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자기의 작은 힘이나마 바칠 일념으로 순간순간을 불태우고있는 영예군인의 모습은 지배인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해주었다.

《이제부터 저를 지배인으로가 아니라 친누이로 생각해주십시오. 우리모두 당을 따르는 한마음을 안고 혁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자요.》

이런 말을 남기고 집문을 나서는 지배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다음날 지배인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협의회에서 영예군인을 위한 량심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자고, 그 길우에 더 큰 자욱을 새겨가자는 지배인의 호소에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열렬히 호응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영예군인가정을 찾는 대렬이 늘어나게 되였고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그들의 진정은 더욱 뜨거워지게 되였다.

철이 바뀌는 때이면 여러가지 보약들을 마련해주었고 영예군인의 안해가 부업일을 하는데 필요한 세간들도 그쯘히 갖추어주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영예군인의 집으로 주방장 김예영동무가 들어서는것이였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동구리가 들려있었다.

얼마전에도 품을 들여 영예군인이 타고다니는 삼륜차를 새것으로 마련해준 김예영동무였다. 그런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일가?

의아함을 금치 못해하는 영예군인에게 그는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우리 지배인동지가 보내는 도배지입니다. 며칠전 영예군인의 집에 갔댔는데 벽에 바른 도배지가 오래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것입니다.》

문양고운 도배지를 받아안은 영예군인과 안해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이런 진실하고 뜨거운 정은 영예군인의 집으로 끝없이 흘러들었다.

언제인가 영예군인이 심하게 앓은적이 있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김예영, 박화순, 류혜경, 최송이동무를 비롯한 문수각의 종업원들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귀한 보약들과 식료품들도 안겨주며 밤새도록 침상곁을 떠날줄 모르는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군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쉬임없이 흘러내렸다.

이런 진정넘친 사실들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하기에 영예군인은 그들이 찾아올적마다 고마움에 앞서 미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군 한다.

그럴 때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군 한다.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극진히 돌보아주는것은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리랍니다.》

바로 이런 고결한 동지적의리심을 소중히 간직한 그들이기에 오늘도 순결한 량심으로 내짚은 그 길을 변함없이 걷고 또 걷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자력갱생의 심오한 철리를 밝혀주시여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적인 승리만을 아로새겨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보도하고있다.

영국신문 《프로레타리안》은 지난 수십년간 제재와 봉쇄속에서 자강력으로 전진해온 나라, 자력갱생을 자기 발전의 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을 핵위협이나 제재로 굴복시키려는것은 그야말로 오산이며 어리석은짓이라고 평하였다.

로씨야의 어느 한 출판사의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의 자강력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조국해방전쟁후 짧은 기간에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자력갱생의 정신이였다는 글을 올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 력사를 쥐여짜면 자력갱생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번영의 전성기를 수놓아가고있는 근본비결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데 있으며 그것은 철두철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산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나라들은 거의 모두가 발전된 나라들의 원조에 의거하거나 그들의 경제운영방식을 모방하는 길을 택하였다. 자체의 경제건설리론도 경험도 밑천도 없이 국가경제를 건설해나가야 하는 실정에서 그 어떤 독자적인 길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것이 보통의 상식이였다.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자력갱생으로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그리고 그 귀중한 경험을 밑천으로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64(1975)년 4월 라틴아메리카의 꼬스따리까사회당 위원장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지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것이 그 한 실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 당은 부닥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우리 나라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수 있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할 때에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을수 없으며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대통령도 자력갱생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능한 농업기술대표단을 파견하여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도록 방조를 주신데 대해 그는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수많은 외국의 인사들을 만나시여 모든 나라와 인민들이 자기 힘을 믿고 싸워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체82(1993)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루과이3월26일운동 대표단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하신 교시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진리를 확신시켜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길을 택한 이 운동의 립장을 적극 지지해주시면서 큰 나라 사람들이나 발전된 나라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자기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려 한다면 그것은 헛된짓이라고,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하는것이라고, 혁명은 누가 선물하지 않으며 혁명의 승리는 자기 힘으로 투쟁하여 쟁취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력갱생의 심오한 철리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실천에서 시련과 난관이 없은것은 결코 아니다. 한때 대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쎄브에 얽어매놓으려고 책동한적이 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봉쇄책동에 못지않은 수정주의자들의 압력과 음모를 단호히 물리치시며 철저히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으시였다.

언제인가 로씨야의 한 인사는 《이전에 조선이 쎄브에 들지 않고 자립경제를 주장한다고 하여 시비가 많았지만 쎄브에 들었던 나라들은 다 망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조선만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있다. 조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성공한 나라이다.》고 언명하였다.

우리 나라의 귀중한 경험은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은 어떤 사회주의나라들은 경제발전에서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오직 마음에 들게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는 조선이다, 조선은 공업과 농업을 다같이 발전시키고 완전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있는 결과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있지 않고있다고 격찬하면서 자기 나라도 자력갱생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산물인 자립적민족경제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있다. 자력갱생의 전통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련이은 기적을 창조해가고있다.

이것은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커다란 힘과 고무를 주고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마련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자주시대와 더불어 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10월명절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1돐,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스웨리예, 네팔, 라오스, 메히꼬에서 토론회, 집회,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정의의 로씨야당 하바롭스크변강지부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기때문이다, 김정은위원장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었다, 오늘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김정은위원장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강화발전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김정일각하를 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신다.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것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다.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도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진두에 모시고 백승떨쳐온 조선로동당의 70여년력사를 찬양하고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로씨야, 네팔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조단체들 《자유한국당》의 모략책동을 단죄

남조선에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로총산하 로조단체들이 지난 22일 서울에서 그 무슨 《채용부정의혹》이라는것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채용부정의혹》이라는것을 들고나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있지만 증거는 단 하나도 없으며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이 보수야당이 민주로총을 사건과 련결시키기 위해 허튼 소문을 사실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교통공사 로조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로조단체들을 채용부정의 주범처럼 광고하고있다고 하면서 외곡된 사실을 정치적으로 리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로동조합을 부정세력으로 몰아대는 《자유한국당》의 낡은 정치수법은 반드시 근절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터무니없는 날조자료들로 로조단체들을 모해하는 보수언론들을 규탄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허튼짓은 그만두고 소설이나 쓰길 바란다고 야유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기자회견에서 로조단체들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허위사실류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 법적으로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범죄사실 폭로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이였던 우병우가 변호사시절 형사사건을 불법적으로 맡아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10억 5 000만원을 받아먹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남조선경찰청이 밝힌데 의하면 우병우는 변호사활동을 하던 2013년과 2014년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던 주요기업체로부터 사건을 변호해달라는 요구를 접수하고도 그 사실을 변호사협회와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

이자는 사건의뢰인들에게 자기가 검찰고위관계자를 잘 알고있으니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처럼 많은 돈을 울궈냈다고 한다.

본사기자

시대착오적인 대결망동을 규탄

남조선에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평화당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였다.

지난 24일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론평에서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랭전적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온 세계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있는 때에 유일하게 반평화적망동을 부리고있는 《자유한국당》의 처사는 세계적인 추종보도감이라고 하면서 박근혜의 《수구꼴통정치》, 홍준표의 《위장평화공세론》이 그대로 부활했다고 비난하였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동족대결란동이 《보수대련합》이라는 간판밑에 빈사상태에 빠진 당을 살려보려는 당리당략으로부터 출발한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결코 자기자신들의 앞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속이 뻔한 행위를 즉각 걷어치우고 조선반도평화과정에 참가할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피의 일요일》이 남긴 값비싼 교훈

로씨야력사에는 비극적인 《피의 일요일》사건이 기록되여있다.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로씨야의 국내정세는 격변하는 사변들로 하여 몹시 복잡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쓴 세계적인 대경제공황의 여파가 로씨야에도 밀쳐들었으며 여기에 일본과의 전쟁까지 터졌다.

로씨야인민들은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었다. 통치계급, 착취계급에 대한 근로대중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갔다. 혁명정세도 더욱 성숙되여갔다.

1905년 1월 3일 뻬쩨르부르그의 뿌찔로브공장 로동자들은 악질기업주의 해고소동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났으며 이것은 총파업으로 확대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짜리반동정부는 혁명적진출에 나선 로동자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할 악랄한 흉계를 꾸몄다. 이에 따라 당시 로씨야공장로동자협회를 조직하였던 승려 가뽄을 내세워 짜리에게 진정서를 내면 요구를 들어줄것이라는 감언리설로 로동자들을 얼리도록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짜리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로동자들은 그것을 곧이 믿고 1905년 1월 9일(일요일) 이른아침 가족들과 함께 평화적시위에 나섰다. 그들은 짜리에게 평화와 빵, 정치적자유와 로동의 권리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짜리의 초상과 교회성상, 기발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짜리의 소굴인 동궁으로 행진하였다. 행렬에는 약 14만명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시위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수 없었다. 동궁앞에 이미 대기하고있던 짜리군대가 황제 니꼴라이2세의 명령에 따라 시위군중에게 일제사격을 퍼부었던것이다. 순식간에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동궁앞광장은 피로 물들여졌다.

로씨야인민들은 이날을 《피의 일요일》이라고 불렀다. 짜리반동정부의 야만적인 학살만행은 로씨야인민의 격분을 자아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짜리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뜨려버렸다. 짜리를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은 범람하는 물결마냥 전국적범위로 무섭게 노도쳐갔다. 1월 9일 사건은 제1차 로씨야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의 발단으로 되였다.

《피의 일요일》은 짜리의 《자비심》에 기대를 걸고있던 로씨야인민들에게 반동적인 통치계급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오직 투쟁으로써만 평범한 근로대중의 권리를 쟁취할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본사기자

남조선학부모들 어린이교육과 보육정상화를 요구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유치원들에서의 부정부패행위가 련이어 드러나고있는데 분노한 학부모들이 진상규명과 주모자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리고있다.

20일 서울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진 학부모들은 유치원들에서의 부정부패행위에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가 책임있는 교육당국자를 처벌하고 어린이교육과 보육정상화를 위해 노력할것을 요구하였다. 21일 경기도에서도 학부모들이 부정부패행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시위투쟁을 벌렸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 증가

24일 남조선 《뉴스1》이 법무부의 자료를 밝혀 보도한데 의하면 범죄를 저질러 소년교화를 받은 범죄자들이 1년내에 재범하는 비률이 해마다 늘어나 사회적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러한 소년범죄자들은 2014년 9.5%, 2015년 12%, 2016년 14%로 계속 늘어났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련방평의회 반꾸바봉쇄를 해제할것을 미국에 요구

로씨야련방평의회가 24일 미국이 꾸바에 대해 실시한 경제, 무역 및 금융봉쇄를 해제할데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유엔총회와 세계의 모든 나라 국회들이 일치하게 반꾸바봉쇄해제를 지지하고 그러한 봉쇄를 의심할바없는 경제적침략행위로 락인할것을 호소하였다.

미행정부가 유엔성원국대표단들에 압력을 가하려고 로골적으로 시도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경제봉쇄를 해제할데 관한 유엔총회결의가 압도적인 찬성투표를 받고있다고 지적하고 성명은 그러나 미국은 수십년간 유엔의 의사에 배치되게 행동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유엔총회결의를 리행하며 꾸바에 대한 경제, 무역 및 금융봉쇄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폐지할것을 미국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였다.

자연재해

나이제리아의 국가비상사태관리국이 22일 밝힌데 의하면 아다마와주에서 올해초부터 현재까지 큰물에 의해 7 89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35만 7 300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21일 이란의 서부지역에서 강풍과 폭우로 16명의 사상자가 났다.

지진

— 카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에서 22일 강한 지진들이 련이어 발생하였다.

이 나라의 씨티브이뗄레비죤방송은 이날 주의 해안지역에서 리히터척도로 6.6~6.8의 지진이 3차례나 일어났다고 전하였다.

진앙은 북위 49.3468°, 서경 129.2135° 되는 곳에 있었다 한다.

— 일본 오끼나와현의 요나구니섬앞바다에서 23일 리히터척도로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24°, 동경 122.6° 되는 곳에 있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상 외부의 간섭을 배격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상 왈리드 알 무알림이 24일 한 외교서한에서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는 자기 나라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수리아의 헌법과 모든 관련문제들은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 없이 수리아인민이 결정해야 하는 주권문제이라고 하면서 그는 정부가 헌법을 토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정을 공정적으로 다루어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존사태의 정치적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의 테로반대투쟁

에짚트경찰이 24일 아슈트도에서 테로분자들의 소굴을 들이쳐 11명의 악당을 소멸하고 많은 무기와 탄약, 폭발물을 압수하였다.

이에 앞서 23일 이란정보상은 후제스탄주에서 폭탄테로공격을 계획하고있던 3개의 테로조직을 적발분쇄하고 15명의 범죄자를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튜니지의 카쎄린주에서 테로를 일삼던 무장악당이 처단되였다.

미국주도 련합군의 공습으로 많은 수리아민간인 살해

수리아에서 미국주도의 련합군의 계속되는 공습만행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23일 이 나라의 인권감시단체는 2014년이래 련합군의 군사작전들로 데이르 알 주르, 알레뽀, 이들리브도들에서 살해된 민간인수는 3 22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중 약 770명이 어린이들이며 560여명은 녀성들이라고 한다.

중국외교부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22일 정기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미사법성과 련방수사국, 국내안전성 등이 중국과 로씨야, 이란을 비롯한 외부세력이 11월에 있게 될 중간선거에 간섭하려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러한 주장이 순전히 억측이며 터무니없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선거에 간섭하는데 흥미가 없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가 걸핏하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는가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미 똑똑히 알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나라에 대한 무근거한 비난과 비방중상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공업지구건설에 착공

우간다동부의 토로로에서 23일 대통령의 참가밑에 공업지구건설 착공식이 진행되였다.

공업지구가 완공되면 여기에서 유리와 강철, 생물비료가 생산되며 약 3 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조성된다고 한다.

이란 서방에 의존하여서는 과학발전을 이룩할수 없다고 주장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최근 과학자들과의 담화석상에서 서방나라들에 의존하여서는 나라의 과학을 발전시킬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서방에 기대를 거는것은 굴욕을 당하는것외에 아무런 리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는 이란이 동방나라들을 과학발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란이 과학의 길에서 진전을 이룩한다면 적들의 위협은 좌절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콜레라전파방지노력

짐바브웨에서 콜레라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17일 이 나라 신문 《헤랄드》는 수도 하라레와 그 주변지역에서 9월에 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사망자수가 5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들에서 약 140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있다고 한다.

에머쓴 므낭가그와대통령은 모든 주민들이 콜레라의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에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소식

도시록색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재

최근 어느 한 연구집단이 연재를 토양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 인공토양으로 나무모를 자래울수 있다.

연구집단은 연재를 주원료로 하고 거기에 버섯의 폐산물과 질, 집짐승배설물, 톱밥을 첨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공토양을 개발해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 대기조건에서 혼합물이 섞인 연재는 발효되며 이 과정에 연재에는 점차 유기물질이 축적되게 된다. 영양기질로 알려진 이 인공토양은 알맞춤한 공간과 산성을 내포하고있어 니탄과 류사하다고 한다.

식물과 유기물질이 부분적으로 부패되어 생긴것으로 하여 영양물질이 풍부한 니탄은 가장 좋은 복합비료원료들중의 하나로 간주되고있다. 골프장과 축구경기장, 정구장, 정원들의 잔디밭을 조성하는데 널리 리용되고있다.

니탄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에서 인공토양은 대단히 실리적이다.

식용버섯의 폐산물을 재리용하기때문에 인공토양의 원가는 니탄수입가격의 절반정도라고 한다. 추산한데 의하면 2 000만t의 연재를 처리하는데 7 200만㎥의 버섯의 폐산물이 리용된다.

2 000만t의 연재로는 1억 2 000만㎥의 인공토양을 만들수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여러 나라에서 사고

— 필리핀남부의 제네랄 산토스시에서 22일 소형뻐스와 승용차가 부딪쳐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21일 파키스탄의 판잡주에서 2대의 려객뻐스가 정면충돌하여 19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 에티오피아의 북부지역에서 22일 려객뻐스와 화물자동차가 충돌하여 12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20일 인디아의 아쌈주에서 려객뻐스가 도로옆으로 미끄러지면서 호수에 빠져 7명의 사망자와 20명의 부상자가 났다.

최근 네팔의 서부지역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뻐스가 방향을 잃고 골짜기밑으로 굴러떨어져 6명이 죽고 5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한 구락부에서 21일 무도장바닥이 무너져내려 약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18일 일본의 센다이시에 있는 2층짜리 살림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죽었다.

— 마로끄의 북부지역에서 16일 렬차탈선사고가 발생하여 7명이 목숨을 잃고 125명이 부상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노예로동을 강요하기 위해 감행한 죄악

2003년말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의 일부에 해당되는 42만여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공개한바 있다.

위원회가 이 명단을 분석조사하는 과정에 일제의 《농경근무대》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던 피해생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찾을수 있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농경근무대》가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운영된 범죄적인 실체였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였다.

《농경근무대》는 일본국내의 부족되는 식량을 생산할 목적밑에 구일본륙군이 조직한 생산부대였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그의 계단식확대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일본국내의 병력과 로동력은 고갈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하여 일제는 《징병》의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끌어다가 《농경근무대》에 배속시키고 부침땅개간을 비롯한 고된 로동에 마소처럼 내몰았다.

일본의 《아사히신붕》 2003년 3월 15일부에는 《조선인 징병하여 식량증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였다. 기사는 태평양전쟁말기인 1945년 4월 조선에서 《징병》된 병사들을 식량증산 등에 동원시켰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구일본군의 전보문을 오사까부의 고등학교 교원이 발견하였다는데 대해 전하였다. 전보문에 의하면 당시 일제는 서부(규슈지방)군인원 1만 5 700명, 각 군관구 《자활대》인원 1만 7 000명, 《농경근무대》인원 1만 3 000명 등으로 일본에 끌어간 4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에게 무기대신 삽, 괭이 등을 주었다고 한다.

《농경근무대》에 끌려갔던 수천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도 그들이 1945년 봄경에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함경남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끌려간 청년들이라는것이 확인되였다.

《농경근무대》성원들의 모집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강제성을 띠고있었다. 그것은 일제가 《농경근무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완전히 의무화된 《징병》제도에 의거하였기때문이다.

피해자 김치런과 진태범은 다같이 《징병》으로 《농경근무대》에 끌려가게 되였는데 그들에게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악법이 적용되였다.

이에 대하여 김치런은 《1945년 1월초에 경찰관주재소의 왜놈순사와 구장이 〈징병〉령장을 가지고와서 나를 면사무소로 끌어갔다. 오후에 나를 포함한 12명이 순천역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이미 300여명의 청장년들이 끌려와있었고 일본경찰들이 그들을 삼엄하게 감시하고있었다. 일제는 양덕방향에서 도착한 화차에 우리들을 태워 떠나보냈는데 헌병들이 화차입구에 서서 우리들을 감시하였다. 우리는 그날 저녁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사동에 주둔하고있던 제44부대로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진태범도 《1945년 3월 어느날 밤 10시가 넘었는데 경찰관주재소의 왜놈순사와 면서기가 우리 집에 나타나서 〈징병〉령장을 내보이면서 래일 오전에 〈군청〉으로 오라고 하였다. 나이 60에 가까운 아버지와 큰어머니를 비롯한 온 집안식구들이 통곡을 하는통에 우리 집은 초상난 집같이 되였다. 나는 도망치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붙잡히는 날이면 죽음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고 붙잡히지 않는다해도 나때문에 온 가족이 왜놈들에게 탄압을 받게 될것이므로 그럴수도 없었다. 이튿날 〈군청〉에 가니 다른 5명의 청년들이 이미 끌려와있었다. 일본군 소위의 인솔하에 안성역에서 기차를 탄 우리는 이틀만에 함경북도 라남에 있는 제19사단으로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을 이렇게 조선국내에 주둔하고있는 일본군부대들에 강제로 끌고가서는 몇달간의 신병훈련을 준 다음 또다시 삼엄한 감시속에 기차와 배를 번갈아태우며 일본으로 끌고가 《농경근무대》에 배속시켰다. 거기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가혹한 노예로동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방불히 회상하면서 《농경근무대》에서의 하루하루는 비인간적인 폭력과 학대를 동반한 지옥같은 생활의 련속이였다고 피타게 절규하였다.

제반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일제가 조선에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일본에 끌고가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

ㄱ-181171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